
2022년 제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회의록

2022. 7.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청탁금지법 준수사항 안내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해당하여, 미술작품심의 위원들은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개별접촉(전화, 대면 등)의 회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위한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회 회의 시 공표하도록 하고, 심의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작품심의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청탁성 전화 및 문자 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시 이를 공표하고 심의에 반영함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호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2022년 제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회의개요>

- ◆ 일 시: 2022. 7. 14.(목), 14:30~15:40
- ◆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 참 석: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 ◆ 안 건: 일반안건 8건 9작품 (조각 7, 회화1, 기타1),
보고안건 1건 1작품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9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안전별 사전검토 의견서 보고 후 위원님별로 평가표에 따라 가/부/조건부승인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별 작품별 가/부/조건부승인을 종합,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일 경우 승인 결정을 하고, 미승인 작품의 경우 공개토론 후 위원별 가/부/조건부승인을 재결정 한 후 최종 승인 결정을 합니다. 1번 안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안건>

1. Meta seed

<긍정적 의견>

- 동적이면서 외부공간에 활력을 줌
- 그물망으로 연결된 유기적 구조의 조형물이 주변 공간과 조화가 무난하고 시각적인 흥미가 예상됨
- 신선한 구성의 작품
-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사용한 점은 신선함
- 작가만의 개성과 제작기법으로 구축된 독특한 작품세계가 잘 반영된 작품
-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원리를 적용한 작가의 개성 있는 작품으로 흥미로운 조형
- 조형물의 이미지와 주변공간과의 관계성을 조화롭게 구성함
- 동적인 느낌의 조형작품으로 작가의 기존작업과 연관성이 있고 공공미술작품으로 무난함

- 자연을 형상화한 곡선 조형과 패턴, LED를 이용하여 공간과 잘 어울림
- 전체 조형성이 선, 면, 크기가 잘 어우러져 세련되고, 사실적이지 않고 추상적 이어서 많은 의미를 상상하게 만드는 작품으로 판단됨.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구조 형태로서 신선함까지 느껴짐. 네모형태의 건축물에 부드러운 곡선 형상과 다각형의 구성이 잘 어우러짐
- 작품의 조형이 유려한 느낌을 주며, 특히 야경 속에서의 효과가 기대됨
- 작가의 작품세계가 잘 드러난 작품

<부정적 의견>

- 기존 작가의 작품세계 속 조형표현의 장점이 반영되지 못함
- 기괴한 생명체를 연상시키는 환경과 부조화한 형태
- 설치장소와 부조화
- 작가의 기존작업과의 연관성이 떨어짐
- 주제의 전달이 미흡하고 설치 위치 부조화
-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사용한 점은 새로우나 조형물의 전체적인 구조는 식상함
- 전반적으로 1차원적인 직접적 표현으로 보이며, 신선한 그래픽적 형상 보완이 필요해 보임
- 작품 가격 과다 측정
- 컴퓨터 툴로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보로노이 기법을 독창적 표현으로 보기 애매 하며, 희소성을 주장하기에는 흔하게 사용되는 조형기법임
- 생물학적 형태는 보는 이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수 있음
-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건축이나 조형에서 한때 유행처럼 많이 사용되던 것으로 작가만의 고유의 조형이라기보다는 진부한 인상이 강함
-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모양을 올려보게 만든 구조이기는 하나, 눈높이부터 살 필 수 없는 점이 아쉬움
- 보로노이 다이어그램과 같은 내부표현은 공감하지만 내부표현과 외부 툴과의 조화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음
- 작가의 주제표현과 잘 어울리지 못함

2. 행복한 상상

<긍정적 의견>

- 단순하면서도 부담없이 즐거움을 줌
- 요즘 드문 재료특유의 매력이 있을 듯하고, 이미지 역시 재미있음
- 주변 공간에 적합한 작품이며, 풍부한 양감의 형태로 안정성이 돋보임

- 이용객들에게 친숙하고 흥미를 느끼게 하는 작품
- 아카데믹한 브론즈의 물성에서 오는 친근함과 친근한 이미지의 사용
- 작가의 개성과 독특한 작품세계가 잘 반영된 작품
- 캐릭터와 브론즈 재료의 조화로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작품
-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
- 작가본인의 캐릭터로 즐거움을 주는 편안한 조형
- 작가의 작품요소가 가미된 친근한 조형작품
-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편안한 접근이 가능함
- 남녀노소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와 캐릭터화된 요정의 형태 등 동심과 행복을 떠올리게 함
- 주변조경과 어울리는 대중친화적인 작품. 작가의 작품과 풍경 속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형식으로 조화로움
- 진부한 조형언어가 아쉬우나 동심이 느껴져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작품

<부정적 의견>

- 장식적 만화 캐릭터 같은 형상으로 주거공간보다는 테마파크 같은 장소에 적합한 특징이 있어 장소 적합성이 떨어짐
- 직설적이며 장식적
- 조형적 의미 표현이 너무 진부하고 일반적이므로 주변 건축물의 공간과의 조화가 애매함
- 색상과 형태가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음
- 무게감이 있는 브론즈 본연의 칼라가 동심의 마음을 표현한 주제와는 맞지 않아 보이므로 전체를 산뜻한 칼라로 표현함이 맞아 보임
- 기존 작가의 작품의 표현방법이 제시한 작품보다 세련되고 탁월함
- 예술성 부족
- 위치 변경이 필요해 보임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근감이 있으나 진부하고 장식적 형태로 영구한 조형물로서 한계를 지님
- 브론즈 느낌의 물성과 형상의 관계가, 인테리어 상점에서 보았던 인형이 크게 확대된 느낌
- 작가의 특성이 반영된 측면은 이해하지만, 형태의 진부한 전형성이 주는 지루함이 있음
- 브론즈색의 도장이 과연 브론즈의 느낌을 잘 낼 수 있는지 의문
- 이 작품은 오피스텔과의 연관성에서 부족함이 느껴짐. 행복한 상상이라는 작품명과 작품의 형태가 너무 사실적임. 어린이집 등 좀 더 동심을 원하는 곳이 어

올릴 것으로 판단됨

- 작품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며,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지에 대해 의문이 듦

<기타의견>

- 많은 작가들이 브론즈 주물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색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론즈색의 도장을 올리는 아이러니한 작업방식을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색이 변하는 것이 좋게 느끼짐

3. NIGHT ON

<긍정적 의견>

- 외부 공간 및 건물과 상호관계가 적절
- 기존 공공미술과는 차별화된 미디어 표현방식
-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시도한 점은 긍정적
- 인터랙티브가 가능하여 사용자 중심의 맥락 체험이 가능함
-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며, 공공미술작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현대도시와 결을 같이 하는 작품으로 무리 없어 보임
- 빛과 어둠, 자연현상을 활용하여 도시공간에
- 비물질적 요소를 개입시키는 점이 긍정적임
- 기존의 사례들을 봤을 때 야간 조명으로서 화사함과 완성도가 있어 보이며, 많은 관객의 관심을 끄는 작품이라 판단됨
- LED의 색상과 입체화로 화려한 연출이 예상됨
- 상가로 들어오는 동선에 위치함으로서 상업지역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신선한 작품임
- 작품의 색채가 돋보이며, 변화가인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림
- 인터랙티브 작품으로 시민들의 호응도와 작품참여의 순기능이 돋보이는 작품

<부정적 의견>

-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 특히 여름 우천 시 폭우에 전기를 사용하는 작품의 특성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유지 관리 문제가 염려됨
- 작품 관리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임. 예산대비 작품의 가성비가 낮아 보임
- 작품가에 맞는 규모인가에 검토가 필요

- 이미지 및 유니크한 매력은 충분한데 가격의 적정성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작품 가격이 너무 높은 듯함)
- 작품 가격 과다 측정
- 가액 과다
- 재료비 및 가격 과다 측정
- 제작비 과다하며 상가의 화려한 간판과 함께 시각적인 피로도가 예상됨
- 흰색 프레임이 주변과 이질적으로 보임
- 송출된 영상을 비추는 구조 프레임이 도시구조에 도식적인 느낌을 줌, 영상이 주는 스케일이 축소되는 답답한 느낌
- LED전구를 활용한 3D큐브형의 뉴미디어 작품의 기술적 특이점은 있으나 신기술적 측면보다 작품의 콘텐츠가 더욱 중요함. 그러나 제시된 심의도서 상으로 작품의 콘텐츠가 전반적으로 진부한 내용임
- 전반적으로 1차원적인 직접적 표현으로 보이며, 신선한 그래픽적 형상 보완이 필요해 보임
- 인터랙티브 아트 설치의 경우 영구성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숙고가 필요하며, 10점의 영상 내용의 연관성과 예술성 미흡함
- 거대한 사각 구조물이 상가 건물의 전면부를 가로 막는 형상이 적절하지 않으며 과도하고 현란한 빛 공해로 공공조형물의 긍정적인 면보다 피로감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주간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임을 고려해 볼 때 야경위주의 작품감상이 용이한 작품으로 작품설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예술작품으로서 작가 고유의 예술성보다는 지나치게 입체영상, 조명의 효과에만 집중하였음
- 오피스텔 업무용이나 주거용에서는 이 작품의 영향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면 산만한 분위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음
- 주간의 조형형태가 미적 감흥을 얻기 어려움
- 주간에 전달되는 감흥이 없음
- 주거(오피스텔) 공간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임(피로도 증가), 상업시설에 대한 민원 고려해야 함
- 빛, 음향에 의한 민원 우려, 미디어가 작동하지 않을 시 작품성 저하
- 10미터 가량의 거대한 구조물이 조간에 심미적인 기능을 못할뿐더러 야간의 지속적인 소음과 영상으로 민원 발생 우려
- 5층 이상 오피스텔 주거 이용자에게 소음이 우려스러움
- 야간경관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건축물 미술작품의 근본취지인 작가지원사업에 부합하지 않음

<기타의견>

- 예술가의 창작세계라기보다는 디자인 회사의 미디어 공공 조형물로 인식되며, 이 작품을 정확하게 작가 개인 창작물로 봐야 하는지
- 작품이 꼭 개인의 창작물일 필요는 없음
- 주변 경관과 야간의 조도 등 고려 필요
- 미디어 파사드 작품의 경우 작품관련 관리비 예산 필요함
- LED를 이용한 미디어 작품이 야간에 구조물을 통해 보이는 이미지는 화려하여 시각적인 관심도는 예상되나, 구조물에 대한 심미성이 주야간 차이가 클 것으로 보여 거기에 따른 주변 경관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놓일지 제시가 필요
- 작품이 작동하지 않는 낮 시간에 구조물이 도시 경관에서 어떻게 보일지, 낮 시간 동안의 조형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함

4-1. The Road

<긍정적 의견>

- 차분하면서 즐거움을 줌
- 기존 작가의 작품세계 안에서 표현된 작품
- 이전보다 개선됨
- 기 심의 시 의견을 반영한 부드러운 색감의 작품이 설치 공간과 조화가 무난함
-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작품임
- 전작에 비해 작품이 공간에 어우러짐
- '인생의 여정'이라는 모티브를 효과적인 조형 시각 언어로 재해석한 작품
- 이용객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것이라 판단됨
- 기존작품에 비해 과도한 색채와 형상의 부담감이 덜어짐
- 무난해 보임
- 기존의 공간과의 부조화적인 측면을 보완한 작품으로 긍정적임
- 심의의견을 잘 반영하여 개선된 작품
-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작품으로 심의의견을 잘 반영하여 변화된 작품
- 설치공간과 조화를 이루어 공공미술작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추상적 형태와 화려한 색상으로 공간에 리듬감을 줌
- 작품의 의도로 아픔과 상처가 아물로 치유해 가며 인생 본연의 아름다운 꿈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로 하였음. 작품 의도는 참으로 좋게 느껴짐
- 공간 및 작품 변경으로 기존의 단점을 잘 보완함

- 공간에 적합해 보이는 작품
- 작가의 작품세계가 잘 반영된 작품으로 밝은 톤의 작품이 전의 작품보다 공간과 조화롭게 어울림

<부정적 의견>

- 심의도서를 참고 해 볼 때 다소 층고가 낮고 좁은 공간에 상대적으로 큰 작품이 걸려 답답한 느낌을 주는 요소가 있음
- 독창성 부족
- 작품이 설치되는 면적이 협소하여, 특히 좌우의 면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좌우의 문틀이 작품과 함께 나열되어 답답함
- 작품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며 감상 시점을 고려하여 문 높이에 맞춰 아래로 내려 설치 요함
- 그림의 설치 위치에 여백이 협소하여 작품이 공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
- 의도는 좋으나 표현된 작품에서 느껴지는 것은 많은 인생의 굴곡이 느껴짐. 힘든 일은 잊고 앞으로의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데 더 초점이 맞추어진 작품이면 더 좋을 듯 함

4-2. Stacked Shapes

<긍정적 의견>

- 기존 작가의 작품세계 안에서 표현된 작품
- 주변 환경과도 조화로운 미술작품
- 이전보다 개선됨
- 기하학 형태의 적층조합의 조형성이 편안함 과 주변공간과 조화가 무난함
- 원래 작가의 작품 스타일이라 오히려 좋은 것 같고, 기하학적이고 색감이 건물과의 조화가 돋보임
- 같은 듯 하나 차이를 발생하는 구조가 재미를 줌
- 해당 공간과 조화로움
-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과 변화로 미니멀한 주변 건축물과 적절하게 어울림
- 화려한 색채와 내용이 강조된 형상의 이미지보다 간결하고 정제된 구조미가 긍정적임
- 패턴과 반복이 만들어 내는 도시의 모습과 인간의 관계를 추상적인 형상으로 해석한 작가의 작품세계와 개성이 잘 반영된 작품
- 1차심의 부결사유를 보완하기 위해 동일한 형태의 지루한 반복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시도하여, 묵직한 조각이면서 동시에 리듬감 있는 조형을 표현.
기하학적 형상의 변화가 건물 및 주변과 조화로워짐

- 전작에 비해 구성과 밀도가 높아짐
- 기존 작품에서의 단점을 잘 보완하였으며, 주변 경관과도 잘 어울림

<부정적 의견>

- 형태가 지루하고 단조로움
- 하단부의 구조가 보행자의 동선을 포함하고 있고 작품의 모서리가 각을 이루고 있음, 따라서 작품 구조물 사이로 보행 시에 충돌 및 부상의 위험이 있는지 구조적 검토가 필요함
- 경직된 형태로 자유로운 표현이 없어 조형물로서 보는 이에게 단조로움을 주는 형태임
- 작가의 기존 작품과 유사한 표현의 반복으로 작품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장식적인 요소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느껴짐
- 존 작품 대비 조형물 개체의 증가 외의 조형미의 개선적 측면을 감지하기 어렵고, 가격이 다소 고가로 책정되어 있음
- 동일형태와 동일색상의 작품 다수 설치되어 변화가 요구됨
- 조형물의 형태가 단순하고 주변공간과의 연결성, 조화성이 다소 부족함
- 보완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작품 규모를 고려할 때 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
- 작품의 특별함과 조형성이 느껴지지 않음.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느껴지지 않음. 그저 기하학적 형태를 쌓아 놓았다는 느낌. 그리고 그 형태가 건축과의 조화로움이 느껴지지 않음
- 다른 작가의 작품과 유사해 보임. 독창성 부족
- 직접되는 정적인 형태에 어두운 무채색의 색감이 우울하게 느껴지는 작품

5. La luna-story book

<긍정적 의견>

- 창작자의 작가적 작품 특성이 반영된 작품으로서 2층 야외 설치 공간 주변과 조화가 무난함
- 부결 사유들이 잘 반영되어 개선됨
- 장소성을 고려한 작품의 공공성이 확보된 작품으로 보이며 사색상 배색 변화가 공간과의 조화에 긍정적임
- 체험용 구조물 같은 느낌의 기존작품보다, 작가의 의도에서 배어 나온 친근한

서사의 배치가 긍정적임

- 가성비 측면에서 아이들이 많은 주거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으로 판단됨
- 책 속에 담긴 동화 이야기를 시각화한 동심과 상상력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스토리가 있는 작품으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
- 이전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무난하게 보완 수정되었음
- 기존의 작품과 연계성이 있는 작업인 동시에 부결된 작품에 비해 조형성이나 예술성이 좋아졌음. 크지 않은 가액에서 조형성을 살리는 시도를 하였음
- 보완 후 기존 단점이 개선되었으며, 작품의 율동성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움이 잘 느껴짐
- 대중 친화적인 조형 표현으로 재미있는 장식적 구조
- 입주민들에게 편안함과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작품

<부정적 의견>

- 조형성이 너무 작위적임
- 아이들 놀이터와 같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와 디자인으로 크기와 높이가 아이들이 매달리거나 하여 부상 및 사고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구조
- 미술작품이라기보다는 유아들을 위한 장식적 기능이 강조된 조형물
- 여전히 장식성이 너무 과도하고 심의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예술적 조형성이 미흡함
- 전체적 구성이 답답 느낌을 줌
- 책을 표현한 사각 프레임이 식상하고, 전체적으로 복잡해 보임
- 유지 보수방안에 대한 방안이 미비해 보임
-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이나 주변과의 관계성이 없으며 지나치게 사실적이며 장식적 표현으로 환경조형물로 적합해 보이지 않음
- 책을 형상화하였으나 공간 구성이 답답함.
- 하강하는 오른쪽 책장의 별이 사람이 일어설 때 부딪힐 위험이 있고 공공작품의 안전성 여부를 고려해야함
- 시장건축에 동화 같은 이야기의 시각화 작품은 어우러짐이 느껴지지 않음. 또한 낮과 밤중에 밤 시간을 연상케 하는 작품으로 너무 시간을 한정적으로 표현한 느낌으로 생각됨. 칼라도 시장과는 동떨어진 느낌이다. 작품이 너무 사실적
- 기존 잔디밭 공간 이용을 해치는 불필요한 요소
- 조형성 부족

<기타의견>

- 작품의 스틸 타공 부위로 인하여 관람자 특히 어린아이들 안전을 고려한 마감 처리 관리 필요
- 조형물의 조경바닥마감은 잔디보다는 포장재료로 변경 검토 바람(조형물이 앉음벽의 기능이라면 이용자 측면 고려)

6. WISH

<긍정적 의견>

- 차분하면서도 동적인 즐거움을 줌
- 소반을 사용한 점이 작품 주제와 어울림
- 작품의 발상이 독특하며, 연출된 패턴이 공간을 시각적으로 분할하여 이용객들에게 관심도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됨
- 여러 각도에서의 조형미를 고려한 형태로 보임
- 작가 고유의 정체성이 기존 작품에 이어 일관되게 확장됨
- 소반이 집적된 유니크한 형태의 조형성
- 공예작가의 작품소재인 소반을 현대적인 공공미술로 미니멀하게 잘 풀어내고자 하였음
- 전통 오브제의 적층 반복적 형태가 공간의 리듬감을 줌
- 단지 한국적 소재인 소반으로 만든 작품의 조형성은 건축과 잘 어울어짐
- 현대적인 감각의 작품으로, 깔끔한 조형성이 주변 경관과 작품을 잘 어우러지게 함

<부정적 의견>

- 작품이 놓일 위치가 어떤 작품을 놓아도 좋지 않은 건축적 공간으로 판단됨
- 작품규모와 난이도 등과 비교하여 작품예산 과다 책정
- 작가의 기존 작품세계의 좋은 조형성이 반영되지 못함
- 설치장소와 어울리지 않고 실내에 더 적합한 작품
- 창작자의 작품 의도는 이해되나, 설치 장소 공간과의 조화로울지 애매함
- 예술적 조형성이 미흡함
- 전통을 재해석하여 표현한 작가의 기존 작품이 적극 반영되길 바람. 벽면에 가까이 있어서 입체적 감상이 어려운 작품임
- 작품 설치 장소 위치 재검토 필요(설치 공간이 답답해보이며, 감상하기에 여유로운 가시 거리 확보가 필요해 보임)
- 모듈의 율동적 표현은 재미를 주나 건물 모서리의 설치는 보행을 방해하여 불편함을 줄 수 있음

- 소반 형태가 의미하는 제의용 물품의 다소 언캐니한 느낌의 공공 미술작품
- 작품성에는 공감하지만 작품의 설치 위치 측면에서 부정적임
- 현대건축물과의 조화 및 예술성이 아쉬움
- 작품설치 위치와 작품 형상의 부조화
- 작품설명과 작품의 의미가 억지스러우며 한국 전통신앙의 주술적인 의미와 돛의 형상의 연관성은 납득하기 어려움
- 조형물 위치가 부적절함(인지성, 랜드마크적 측면 고려하여 위치 재검토 필요)
- 반복적인 형태의 조형이 단조롭고 공간과의 부조화
- 좌대가 지나치게 무겁고 경직되어 보이는 인상을 줌
- 건축조형물은 모더니즘 시대의 작품과 달라서 설치장소와 건축물과의 장소적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본 작품은 소반이라는 소재와 여행을 떠난다는 의미가 이 건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또한 정화수 담는 한국 전통신앙의 주술적 의미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찬반의 의견도 많을 것으로 생각됨. 작가의 작품 의도가 이 건축물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됨
- 정면성이 강조된 작품
- 구성 원리가 단조로움
- 작품설명과 형태 간의 개연성이 없어 보임

<기타의견>

-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위치 재검토를 권고함
- 작품은 매우 세련되고 좋는데 아이들이 작품 구멍에 발을 끼워넣어 올라타면 위험할 듯. 단을 더 높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작하면 어떨까?
- 건물의 경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행 가능한 폭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움. 문서 보완하였으나, 해당 위치에 작품이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임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함

7. Unique Cat

<긍정적 의견>

- 심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개선됨
- 8차 심의로 집적되는 개별적 화강석의 물성에서 오는 특이성이 긍정적임
- 이전의 부결사유들을 보완하여 한층 공공미술로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적합해 보임. 좁은 공간안에서 대중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으로 잘 변형하였음

- 기존 단점이 보완 후 개선되었으며,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림

<부정적 의견>

- 조형성과 메시지가 다소 진부함
- 이전 심의의 작품들과 비교하여 조형적으로 후퇴한 작품성
- 여전히 심의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야간 풍경이 다소 기괴하게 느껴짐
- 좁은 공간을 감안한 작품으로서 이해는 되나, 전작대비 더 복잡하고 각진 석재의 적층식 조형물이 불안해 보이고 부주의한 관람자로 인한 작품의 손상 등 유지관리가 우려됨
- 예술적 조형성이 미흡함
- 조형성 부족하고 가격 적정성에 문제
- 정면성이 강해 여러 각도에서의 감상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음
- 작품 가격 과다 측정
- 작품위치 비효율적
-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며 장소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보임
- 작가의 스타일에 변화를 가미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동화의 이야기로 인한 친숙한 측면보다 다소 괴이한 느낌이 있어 조형성에 공감하기 어려움
- 심의 의견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개선되지 않음
- 심의의견 반영이 안됨
- 단조로운 큐브의 무의미한 반복이 지루함을 주며 예술성이 더욱 아쉬움
- 협소한 장소에 설치되는 작품으로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할 때 각이 진 부분이 많이 안전성이 우려됨
- 고양이를 단순화하여 조형미를 살린 점은 좋으나 구성이 단조로움
- 작품의 의도는 좋으나 표현하는 조형성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짐. 표현된 작품 속 면과 선, 크기, 칼라 여러 부분에서 어우러지지 않게 느껴짐. 작품의 표현이 너무 복잡하고, 단순하게 느껴짐
- 이전 작품과 변화가 없고, 독창성이 부족한 진부한 형식
- 장소 적합성을 찾기 어려움
- 아치 형상과 고양이 형상이 공간과 이질적이며, 조형미가 부족함

<기타의견>

- 조명설치에 대한 상세 배선도 누락 및 석재 통석에 대한 파스너랑 세트앙카에 대한 안전도 의구심이 들어 상세 시공도가 필요하다 사료됨

8. Poodle

<긍정적 의견>

- 이견없음

<보고안건>

1. 빛이 된 나무

- 2022년 7차 시“크리스탈 특성을 고려한 유지보존 계획 추가 제출”로 조건부 승인된 작품으로 그 이행을 확인함

<심의결과 집계 및 결과발표>

위원장 : 오늘 일반안건 9개 작품 중 2, 4-2, 5, 9번 작품이 승인, 4-1, 6번 조건부승인, 나머지는 부결되었습니다. 보고안건 1작품은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2년 제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승인된 작품은 시민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